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장 형 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장 형 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개발

지도교수 안 석 균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장 형 윤

장형윤 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년 6월

## 감사의 글

이 논문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의 석사학위 지도교수님이신 안석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의 많은 부족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선생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은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가능하게 해주신 선생님의 각별한 지도와 도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 강지인 선생님, 김은주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 김경란 선생님, 이수영 선생님, 그리고 이선구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산병원에서 정신과 전공의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주신 이병욱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박상진 선생님, 강지인 선생님, 그리고 김은주 선생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석사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남궁기 선생님과 여인석 선생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번역 및 역번역 과정에 도움을 준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새어휘팀 김태훈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지 작성에 참여해주신 자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4월  
장형운 올림

## 차 례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재료 및 방법	4
1. 대상	4
2. 도구	4
가. 편집증 척도 (Paranoia scale)	6
나. 귀인 양식 설문지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6
다. 지각 이상 척도 (Perceptual Aberration scale)	6
라. 마술적 사고 척도 (Magical Ideation scale)	6
3. 자료의 처리 및 통계 분석	7
III. 결과	8
IV. 고찰	12
V. 결론	14
참고문헌	15
영문요약	17
게재 리스트	19

## 표 차례

표 1. Summary of measures .....	9
표 2. Interrater Reliability Analysis(N=40).....	10
표 3. Validity correlations of the K-AIHQ .....	11



## <국문 요약>

###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개발

#### 목적

편집증의 연구에서 적개심의 사회 인지 편향을 평가하는 도구로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어판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 방법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과 역번역을 시행하였다. 83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결과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의 점수는 원 연구와 일치하였다. 편집증 척도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와 연관성이 있었으나, 마술적 사고 척도와 지각 이상 척도는 연관성이 없었다. 항목별 검사자간 신뢰도는 용납할 만한 수준이었다.

#### 결론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는 편집증 환자에서 적개심의 사회 인지 편향을 평가하기에 신뢰할만하고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

핵심되는 말 : 편집증,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신뢰도, 타당도

#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 개발

<지도교수 안석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장 형 윤

## I. 서론

편집증(paranoia)은 의심, 불순한 의도를 느낌, 분개, 외부의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고 있다는 느낌 등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일관된 사고 방식이다<sup>1</sup>. 한때 망상 장애 환자를 뜻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특정한 사고방식 혹은 사고의 경향성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편집증적 사고 방식이 정상인으로부터 정신병적 양상의 역치(threshold)를 넘는 수준의 망상장애 환자에게까지 두루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편집증을 연속선상에서 설명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비병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 정신질환에서 흔히 발견되는 망상까지가 포함되겠다. 편집증이 정상인으로부터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망상 수준에 걸쳐 연속선상에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지지되고 있으며, 편집증의 정도는 인지, 정서, 행동상의 차이와 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4</sup>.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가지며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좀더

적개심을 가지는 경향을 가진다<sup>5</sup>.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편집증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 판단을 하려는 경향과 연관이 있었다<sup>6,7</sup>. 비임상적 수준의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사고 편향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립적인 행동을 좀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sup>8</sup>.

편집증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인지 편향(social cognitive bias)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귀인 양식 설문지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ASQ)<sup>5,9</sup> 와 내적, 인적, 상황적 귀인 설문(Internal, Personal,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 IPSAQ)<sup>10</sup> 등이 있다. 이들 도구는 특정 결과가 어디서 -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 - 기인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편집증의 평가는 지각한 위험이 실재한다고 느끼는지, 얼마나 의도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두 설문 도구는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 대한 사회 인지 편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개심(hostility)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들도 있지만 (Buss-Durkee Hostility Scale<sup>11</sup>, Aggression Questionnaire<sup>12</sup>) 이들은 모두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적개심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지각된 적개심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Combs 등<sup>5</sup>은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이 단서가 부족하여 타인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 대하여 편향된 사회 인지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적대적 사회 인지 편향성을 평가하는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Ambiguous Intention Hostility Questionnaire; AIHQ)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의도의 모호성에 따라 다른 세가지 상황에 대하여 피험자들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 적개심, 그리고 공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HQ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편집증의 평가와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유용성과 제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재료 및 방법

### 연구 대상

83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에 설문지를 보고 이해하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정신과적 과거력 및 현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터넷에 실린 피험자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한 남자 25명, 여자 5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2.2 \pm 4.4$ 세였고 평균 교육기간은  $14.2 \pm 3.6$ 년이었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허가아래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하였다.

### 연구 도구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는 모두 15가지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5가지(1,7,9,11,15번 문항)는 분명하게 의도적인 상황, 5가지(2,4,6,12,14번 문항)는 분명히 우발적인 상황, 나머지 5가지(3,5,8,10,13번 문항)는 의도가 모호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황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 (blame), 적개심(hostility), 공격성(aggression)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각각의 상황이 스스로에게 벌어졌다고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험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1 “전혀 그렇

지 않다” 부터 6 ”확실히 그렇다”), 이 일로 피험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1”전혀 화나지 않는다” 부터 5”매우 화난다”),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탓할 것인지(1 “전혀 아니다” 부터 5 “아주 많이 한다”)에 대해 스스로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적개심과 공격성에 대해서는 피험자가 주관식으로 작성한 답을 읽고 평가자가 1점(적개심의 경우 “전혀 적대적이지 않다”, 공격성의 경우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에서 5점(적개심의 경우 “매우 적대적이다”, 공격성의 경우 “매우 공격적이다”) 으로 이루어진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적개심 평가의 경우, 피험자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라고 답했다면 1점을, “일부러 한 행동이지만 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면 3점을,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답했다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공격성 평가의 경우, 피험자가 상대에게 “아무런 대응도 않겠다”라고 답했다면 1점을, “왜 그랬는지 묻겠다”라고 했다면 2점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겠다”라고 했다면 3점을, “호통치겠다” 혹은 “소리질러 화내겠다”라고 했다면 4점을, “싸우겠다”라고 했다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의 번역과 역번역은 문항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그 내용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영어 문화권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정신과 의사 2인이 번역을 수행하고, 이를 다시 영어 문화권에서 성장한 또 다른 정신과 의사 1인이 역번역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말큰사전편찬사업회의 국어학자 1인이 자문하여 정신과 의사 4인이 회의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며, 최종 문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타당도 연구를 위해 사용된 비교 척도에 관한 설명이다.

1) 편집증척도(Paranoia scale)<sup>1</sup>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될 수 있는 비임상적인 편집적 사고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을 1에서 5점 사이의 라이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가 된다. 내적 일치도 Chronbach's coefficient  $\alpha=0.84$ 로 높은 편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안정적이다( $r=0.70$ ).

2) 귀인양식설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sup>5</sup>

6가지 긍정적 상황과 6가지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무엇이 원인이라고 여기는가’를 7점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한 척도이다. 개발자들은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우울증상이 있을수록 어쩔 수 없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총체적인 귀인 양식을, 그리고 외부 보다는 내부로 귀인시키는 사고 양식을 보였다. 내적 일치도 Chronbach's coefficient  $\alpha=0.75$  및 0.72로 높은 편이었으며 검사 재검사 일치도 역시 항목별로  $r=0.58$  부터 0.70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통계 분석시 사용한 ASQ-bias 점수는 나쁜 결과에 대해 자신의 탓을 한 문항의 점수에서 좋은 상황에서 자신의 탓을 한 점수를 뺀 혼합 지표값(composite scores)이다.

3) 지각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sup>13</sup>

Chapman 등이 개발한 이 척도는 비임상적 수준의 피험자들의 별난 믿음(unusual belief)과 경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병적 증상과 비슷한 지각 경험을 측정하는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4) 마술적사고척도(Magical Ideation scale)<sup>14</sup>

Chapman 등이 개발하였으며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

난 믿음과 마술적 사고의 존재를 평가하며 역시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 자료의 처리 및 통계 분석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blame)를 평가하는 세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그리고, 평가자가 피험자의 주관식 답안을 읽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적개심(hostility)과 공격성(aggression)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자간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40명의 결과를 2명의 평가자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평가를 하였으며 상황별 평가 점수의 합을 가지고 intraclass coefficient를 구하였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평가를 위해 다른 척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즉, 본 저자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편집 증상, 적개심, 타인으로의 귀인양식 등의 개념을 평가하는 다른 도구들, 즉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 및 귀인양식설문지(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의 ASQ-bias와는 각각 양의 상관관계 및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를 기대하였고, 이론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신병적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들-지각 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와 마술적 사고척도(Magical Ideation scale)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종속 변수는 편집증척도(paranoia scale)로 삼았다. 성별을 첫 번째 단계의 변수로, ASQ-bias, 지각 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척도(magical ideation scale) 점수를 두 번째 단계 변수로, 모호한 상황

에서의 K-AIHQ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 (blame), 적개심 (hostility), 공격성 (aggression) 점수를 중재 변수로 입력하였다. 모든 통계 검정의 유의 수준은  $P < 0.05$ 인 경우로 보았다.

### III. 결과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를 비롯하여 타당도 평가를 위해 함께 시행한 여러 설문지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blame)를 평가하는 세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는  $\alpha=0.53$ , 분명히 의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alpha=0.61$ , 분명히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alpha=0.75$ 였다. 적개심과 공격성 항목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Table 1. Summary of measures

Measure	Mean(SD)	Sample range
Paranoia scale	43.2(12.7)	21-79
Perceptual Aberration	7.66(6.90)	0-33
Magical ideation	10.2(4.69)	3-23
BDI	10.7(9.39)	0-54
ASQ-bias	-0.08(1.14)	-3.0-2.67
K-AIHQ index scores		
Blame Ambiguous	2.7(0.58)	1.1-3.9
Blame Intentional	3.8(0.54)	1.6-4.9
Blame Accidental	2.0(0.54)	1.0-3.8
Hostility Ambiguous	1.4(0.30)	1.0-2.2
Hostility Intentional	2.0(0.49)	1.0-3.4
Hostility Accidental	1.0(0.10)	1.0-1.4
Aggression Ambiguous	1.5(0.30)	1.0-2.6
Aggression Intentional	1.9(0.50)	1.2-3.6
Aggression Accidental	1.3(0.33)	1.0-3.0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ASQ-bias: composite attributional style scores on all of the internality items for bad outcome - those for good outcome

Table 2. Interrator reliability analysis (N=40)

Situation	Hostility	Aggression
Ambiguous	0.861	0.709
Intentional	0.929	0.876
Accidental	0.835	0.801

Interrator coefficient :  $p < 0.001$

준거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예상한 대로 편집증척도 (paranoia scale)와는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 및 마술적사고척도 (magical ideation scale)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3)

Table 3. validity correlation of the K-AIHQ

Measure		Convergent		Divergent	
		Paranoia	ASQ-bias	Perceptual Aberration	Magical Ideation
Blame	Ambiguous	0.42*	-0.07	0.26	0.31
	Intentional	0.51*	-0.06	0.25	0.22
	Accidental	0.31	-0.17	0.16	0.32
Hostility	Ambiguous	0.43*	-0.23	0.15	0.23
	Intentional	0.37*	-0.02	-0.02	0.02
	Accidental	0.12	-0.03	0.04	0.24
Aggression	Ambiguous	0.11	-0.07	0.23	0.07
	Intentional	0.11	0.06	0.21	0.02
	Accidental	0.22	-0.06	0.22	0.30

\*uncorrected  $P < 0.001$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ASQ-bias, 지각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척도(magical ideation) 점수는 편집증척도(paranoia scale)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R^2=0.314$ ,  $R^2\Delta=0.344$ ,  $F(3,66)=11.515$ ,  $P<0.0001$ ). 성별과 편집증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 중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blame), 적개심(hostility), 공격성(aggression) 점수는 편집증척도(paranoia scale)을 유의한 수준으로 설명하였다(Block 1,  $R^2=0.425$ ,  $R^2\Delta=0.131$ ,  $F(3,63)=9.486$ ,  $P<0.0001$ )

#### IV. 고찰

기존 연구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상황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귀인 양식(attributinal style)을 보였다<sup>10,15</sup>.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사고성향이 편집증의 핵심 사고방식으로 가정되고 있으나 이제껏 이같은 핵심 특징을 평가하는 도구는 적절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편집증적 사회 인지 방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렴 타당도의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 적개심 설문이 paranoia scale 및 ASQ-bias 점수와 각각 양 및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를 기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paranoia scale은 의도가 모호한 상황 및 분명히 의도적인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 및 적대감의 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상황 중에서 타인의 의도를 알아차릴 단서를 파악해내는 능력의 부족<sup>3,16</sup>은 편집증적 사회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에 대해 좀더 많이, 타인의 탓을 하고, 좀더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ASQ-bias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편집증 척도(paranoia scale)를 비롯하여 Paranoia/Suspiciousness Questionnaire<sup>17</sup>와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sup>10</sup>를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모두 편집증적 사고방식으로서의 귀인양식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된 척도로 수렴 타당도를 가지기에 적절하였다. 한국어

관 설문을 시행할 때에는 이들 중 한국어로 표준화된 설문 도구는 없었기에 한국에서 표준화된 귀인 양식 평가 설문지인 ASQ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긍정적 결과에 대해 얼마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지를 측정하고자 한 척도였다. 또한, 부정적 상황뿐 아니라 긍정적 상황에서의 귀인 양식(attributional style)도 측정하는 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와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이 정신병적 경향성(psychosis proneness)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구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정도 및 적개심의 정도를 평가하지만 비일상적인 믿음이나 경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의 구성 타당도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해 증명되었다. 성별, ASQ-bias, 지각이상척도(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척도(magical ideation scale) 등의 다른 편집증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여도 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도(blame)와 적개심 점수는 paranoia scale 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하였다.

환자들이 직접 매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blame)을 측정한 세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상황에 따라 Cronbach's  $\alpha = 0.53 \sim 0.75$ 로 기존 연구의  $0.84 \sim 0.85$ 에는 못 미치지만 용납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평가자가 환자들의 주관식 답변을 보고 직접 평가하는 적개심, 공격성 항목의 평가자간 일치도 역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을 편집증적

사회인지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참여한 피험자의 수가 적다는 점, 피험자들의 연령 분포가 넓지 않다는 점은 본 표준화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편집 증상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향후 좀더 다양한 연령 분포의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군과의 비교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적개심 설문지가 우리 나라 일반 성인에게서도 의도가 다른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을 평가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어판 모호한 의도 적개심 설문지의 분별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1) Fenigstein A, Vanable PA.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 Pers Soc Psychol* 1992;62:129-38.
- 2) Combs DR, Michael CO, Penn DL. Paranoia and emotion perception across the continuum. *Br J Clin Psychol* 2006;45:19-31.
- 3) Combs DR, Penn DL. The role of subclinical paranoia on social perception and behavior. *Schizophr Res* 2004;69:93-104.
- 4) Peters ER, Joseph SA, Garety PA. Measurement of delusional ideation in the normal population: introducing the PDI (Peters et al. Delusions Inventory). *Schizophr Bull* 1999;25:553-76.
- 5) Combs DR. The Ambiguous Intentions Hostility Questionnaire (AIHQ): A new measure for evaluating hostile social-cognitive biases in paranoia. *Cognitive Neuropsychiatry* 2007;12:128-43.
- 6) Garety PA, Freeman D. Cognitive approaches to delusions: a critical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Br J Clin Psychol* 1999;38 ( Pt 2):113-54.
- 7) Moritz S, Woodward TS. Jumping to conclusions in delusional and non-delusional schizophrenic patients. *Br J Clin Psychol* 2005;44:193-207.
- 8)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Y, Metalsky GI, Seligman MEP.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82;6:287-99.
- 9) 이영호 원. 우울증과 인과귀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990;9:111-33.

- 10) Kinderman P, Bentall RP. A new measure of causal locus: the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96;20:261-4.
- 11) Buss AH,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 Consult Psychol* 1957;21:343-9.
- 12) Buss AH, Perry M.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 Pers Soc Psychol* 1992;63:452-9.
- 13) Chapman LJ, Chapman JP, Raulin ML. Scales for physical and social anhedonia. *J Abnorm Psychol* 1976;85:374-82.
- 14) Eckblad M, Chapman LJ. Magical ideation as an indicator of schizotypy. *J Consult Clin Psychol* 1983;51:215-25.
- 15) Kinderman P, Bentall RP.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 Abnorm Psychol* 1997;106:341-5.
- 16) Turkat I, Keane S, Thompson-Pope S. Social processing errors among paranoid personaliti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990;12:263-9.
- 17) Rawlings D, Freeman JL. A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paranoia/suspiciousness. *Br J Clin Psychol* 1996;35 ( Pt 3):451-61.



<영문요약>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the Ambiguous Intentions  
Hostility Questionnaire (K-AIHQ)

Hyoungyoon Ch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k Kyoan An)

Objectives

We studi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Korean version of the Ambiguous Intentions Hostility Questionnaire (K-AIHQ), which measures hostile social-cognitive biases for use in the research on paranoia.

Methods

The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of the AIHQ with concern for the cultural differences were done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cedure. A sample of 83 healthy volunteers completed the K-AIHQ.

Results

The scores of the K-AIHQ were comparable to the results of the original studies. The Paranoia Scale was correlated with the K-AIHQ, but Magical Ideation and Perceptual Aberration scal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K-AIHQ. The interrater reliabilities of the items in each situation were in the acceptable range.

Conclusion

The K-AIHQ seems to be a reliable and valid test to measure

the hostile social cognitive biases of patients with paranoia.

-----

-

Key Words : paranoia, K-AHQ, reliability, validity

## 계재 Lis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9;48:29-35